

성장률 1.8%로 낮춰...경제 안정적 관리·민생회복 집중

정부 올 경제정책 방향...상반기 공공부문 재원 18조 투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

정부가 극심히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올 상반기 중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최대 580만원 이상 지급한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최대 1000만원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인들의 소득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2일 오전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국가 경

제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54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2%를 하회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23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 6번 밖에 없었다. 특히 12·3 계엄선포 등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럽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경우 향후 경제 성장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 경제정책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등 경기

회복 가속화를 위한 경기보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공공부문 재원으로 18조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 재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주요 사업들의 기금계획을 2조5000억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지난해 63조5000억원에서 올해 66조원으로 2조5000억원 확대한다. 또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3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초과 집행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은 지난해 599조원에서 올해 611조원으로 12조원 확대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만 중앙 전체 예산의 67%, 지방은 60.5% 내의 예산을 집행하며, 전년 보다 규모도 5조원 이상 늘렸다. 또 85조원 규모에 달하는 민생·경기 사업들은 올 1분기 중

에 4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집체일로를 걸던 '내수 부진' 개선을 위해 소비 제고 정책도 제시됐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구매 시 현금 지원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소비제세 등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코로나 19 당시부터 고물가는 지속된 반면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점이 짚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내 관광 및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권)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의 방안도 내세웠다.

내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던 건설·부동산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배제를 오는 2026년 5월로 1년 연장하고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

담금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고, 전 기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민들의 생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법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 상반기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자기자본의 75%까지 확대하고, '밸류업' 추진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하고,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위기를 기회로...반드시 이기는 전략 수립 실행해야”

주요 그룹 총수·CEO 신년사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마주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주요 경영 방침으로 '경쟁력 강화'를 택했다.

안성훈 HS호성 대표이사(부사장)는 2일 “올 한 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의 불확실한 요인들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이 예상된다”며 “경쟁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생산성이 높은 고효율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철저하게 시장 움직임을 파악하고, 고객의 목소리까지도 세밀하게 청취해 반드시 이기는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도 한종희 디바이스경영(DX) 부문장(대표이사 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지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도화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올해는 확실한 디바이스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업의 근간인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AI와 품질 관련 조직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미래 기술 리더십과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전고체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인도·북미 등 글로벌 성장 시장에서 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관계 전쟁과 중국의 공급 과잉 등을 언급한 뒤 “현재의 난관을 전회회복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협과 수협도 위기 돌파와 함께 조합원의 이익 증진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실익 증진을 통해 농업에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 소득 3000만원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업소득 3000만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수취 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중앙회 경영진과 새해 첫 업무를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시작하면서 “상호금융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CES 2025' 모니터 5종 공개
삼성전자는 오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대폭 향상된 32형 스마트 모니터 M9를 비롯한 2025년형 모니터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스마트 모니터 M9와 오디세이 OLED G8, 오디세이 OLED G6 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제공〉



기아 EV9



기아 EV6

현대차·기아 전기차 5종 미국 IRA 최대 7500달러 보조금 받는다

EV6·EV9 등 혜택 대상 포함

현대 전기차 5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소비자 세액 공제)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올해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이 작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탈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모델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다. GV70은 지난해 잠시 보조

금 혜택을 받다가 4월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제외됐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가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총 9만 134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111대)과 비교해 30.3% 증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IRA가 폐지 내지는 급격히 축소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40세부터 희망퇴직...“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69년 하반기~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환율 안정...5.9원 내린 1466.6원

원·달러 환율은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1460원대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66.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한 뒤 급세 하락 전환했다. 이후 종일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오후 3시5분께 1,465.3원까지 내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만나 앞으로 환율 흐름에 대해 “오늘 내일, 앞으로 일주일 이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경

제사령탑마저 탄핵될 위험이 줄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평했다.

다만, 환율 상황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7%,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43%, 나스닥 지수는 0.90% 각각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현재 108을 웃돌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32.52)보다 2.48원 오른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156.7선이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한전그룹사 성금 8억원 기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 등 전력그룹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8억원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들을 펼쳤다.

한전이 2억원을, 한전KPS(1억 5000만원), 한전KDN은 1억원, 한국전력기술과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원자력연료, 중부발전 등이 각각 5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력그룹사들은 또 참사 발생 직후 마련된 합동 분향소와 임시안치소의 전력공급을 위한 비상발전차를 배치했고, 합동분향소에는 부스를 마련해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가족 등을 위한 방한용품, 음료, 휴대폰 충전 등을 지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마음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최대 규모 공기업으로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의 복구활동 및 유가족 분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세청 무안공항 직원 배치 24시간 상담

무안지역 납세자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유가족 및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증시 개장...“불확실성 대응하고 밸류업 지속”

한국 증시가 2일 2025년 개장식을 열고 올해 첫 거래를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증권 업계 및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이날 개장식사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관리자로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수익원인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밸류업도 일관되게 지속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모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더이상 피해 없이 공모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8.94 (-0.55)
↑ 코스닥	686.63 (+8.44)
↓ 금리(국고채 3년)	2.507 (-0.089)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68.00 (-4.50)